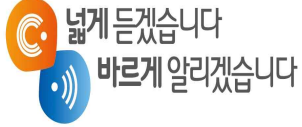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4. 7. 25(금) 총 8매(본문 6, 붙임 2)	
담당 부서	교통정책조정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용석, 사무관 이성주, 주무관 유용식 • ☎ (044)201-3786, 3793
보 도 일 시		2014년 7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7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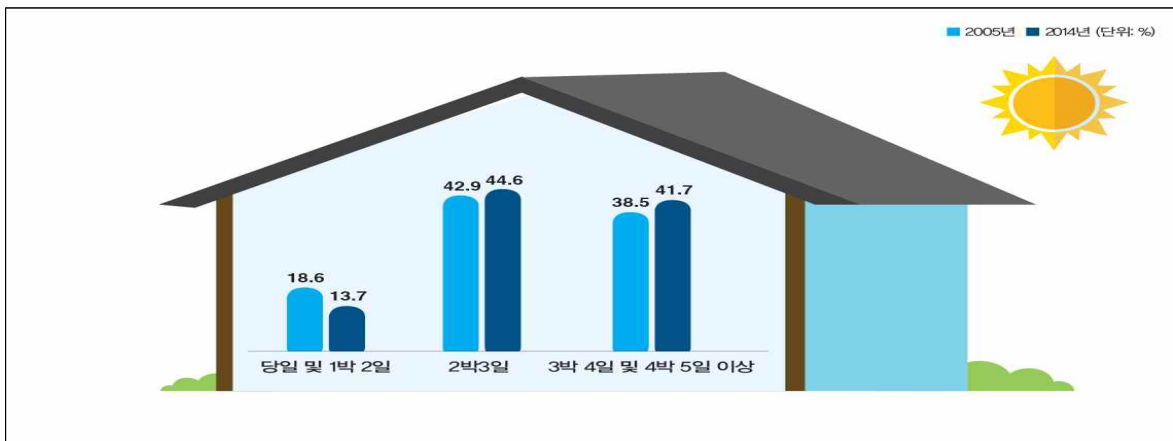
“늦게·길게·멀리·소규모로” 여름휴가 풍속 변화 10년간 통행패턴 분석...인구·기후변화·소득·SOC확충 영향

- 지난 10년간 하계휴가는 소득향상 및 SOC 확충 등으로 인해 3박4일 이상의 장기간 여행비율과 해외, 제주도 및 남해안 장거리 여행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. 또한, 기후변화, 인식변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7월말에서 8월초로 집중되던 것이 8월 중하순까지 분산되어졌다. 더불어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인 이하의 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였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하계휴가기간 통행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, 3박4일 이상 장기체류 3.2%(38.5%('05)→41.7%('14)) 및 해외여행 3.1%(4.6%('05)→7.7%('14)) 그리고, 남해안 및 제주도로의 여행비율이 7.1%(21.2%('05)→28.3%('14)) 각각 증가하였다.
- 또한 7월 5주~8월 1주 휴가출발비율은 11.1%(05년: 71.4%→14년: 60.3%) 감소한 반면 8월 2주 이후 출발비율은 10.9%(05년: 10.4%→14년: 21.3%)정도 증가하여 여행 시기는 점차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가기간 분산 정책 및 SOC시설 확충, 교통정보 제공능력 향상 및 정부의 특별교통대책 등으로 인해 최대 소요시간은 단축되어, 도로정체는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.

□ 하계휴가 여행일수는 증가, 출발예정일은 8월 2주 이후로 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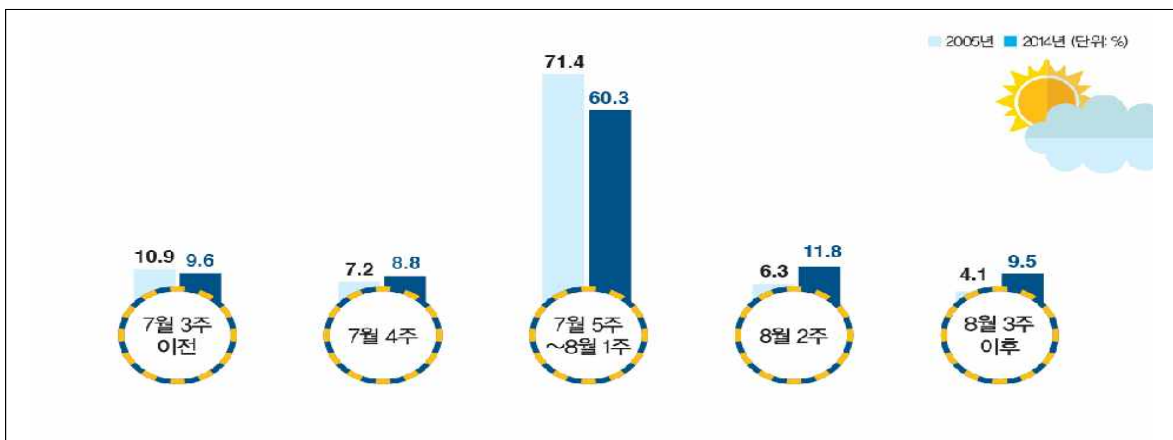
- (휴가 여행일수) 과거 10년간 당일 및 1박2일 비율은 감소(18.6%('05) → 13.7%('14))한 반면, 2박 3일 · 3박 4일 및 4박 5일 이상의 장기간 여행비율이 증가(2박 3일 42.9%('05)→44.6%('14), 3박 4일 및 4박 5일 이상 38.5%('05)→41.7%('14))하였다.

< 휴가여행 기간 >



- (하계휴가 출발예정일) '7월 5주~8월 1주'의 출발비율이 가장 높지만, 10년간 11.1%(71.4%('05)→60.3%('14)) 하락하였으며, 8월 2주 이후가 증가하여 휴가시기가 점차 분산 ·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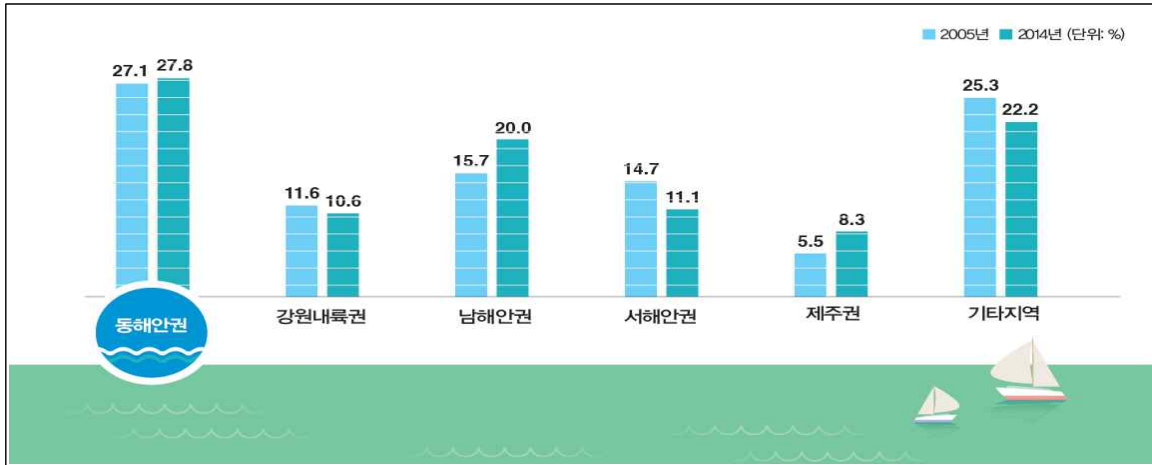
< 하계휴가 출발예정일 >



□ 국내 강원권 비율 여전히 높아, 남해안·제주도 및 해외 이동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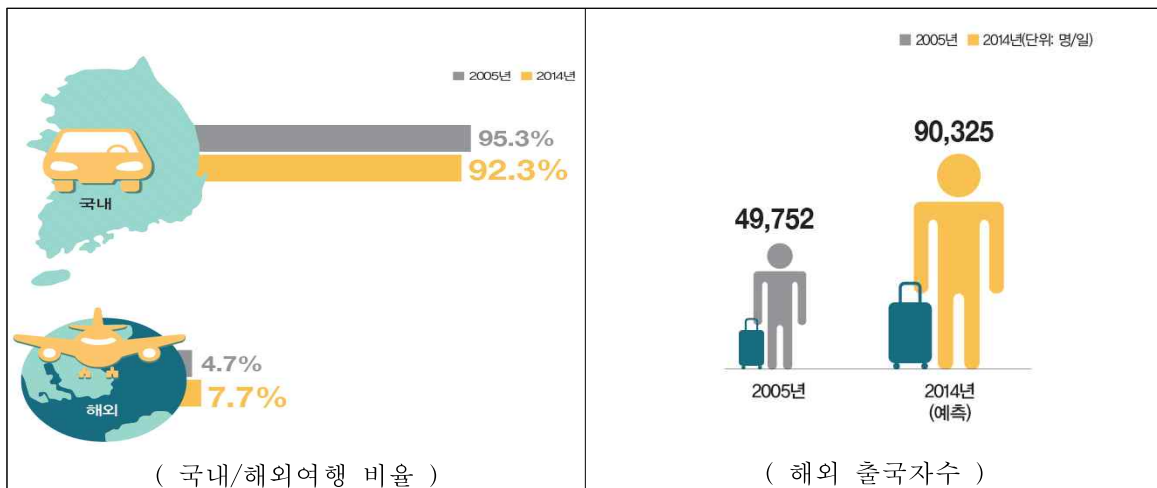
- (휴가예정지역) 휴가예정지역의 경우 2005년 대비 2014년 ‘동해안권 및 강원내륙권’이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으며(38.7%('05)→38.4%('14)), ‘남해안 및 제주권’의 비율은 지속 증가(남해안권 15.7%('05)→20.0%('14), 제주권 5.5%('05)→8.3%('14))하였다.

< 하계휴가 예정지역 >



- (해외여행비율 및 출국자수) 해외여행 비율은 3.0%p(4.7%('05) → 7.7%('14))증가함에 따라 하계휴가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.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해외 출국자수를 비교한 결과 1일 평균 81.5% (49,752명('05) → 90,325명('14 예측치))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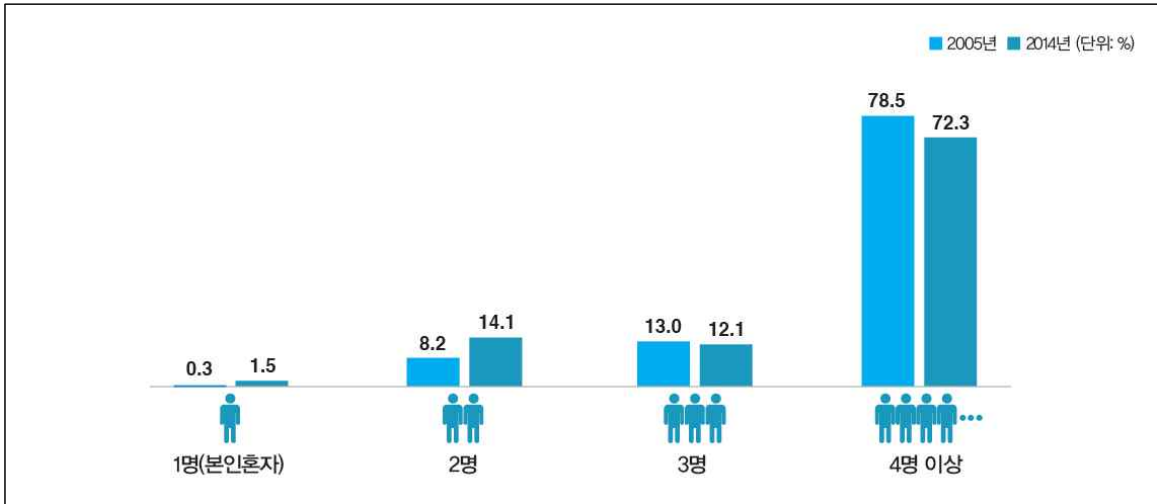
< 국내/해외여행 비율 및 해외 출국자수 >



□ 소규모 단위 이동 증가 및 6월 이전 휴가계획 수립 비율 높아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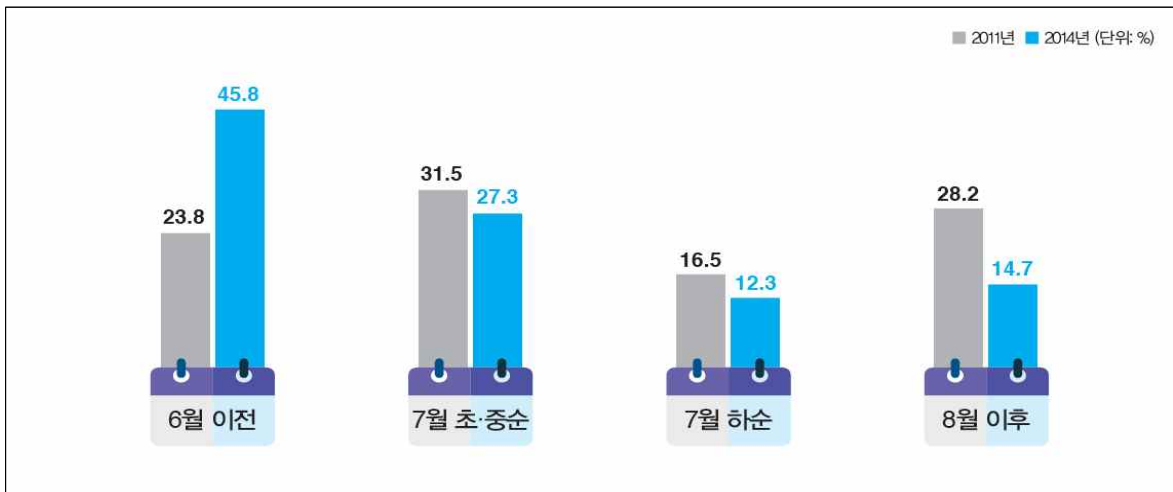
- (동행인원) 하계휴가 여행 시 동행인원의 경우 1~2명 단위 이동이 증가한 반면, 3~4명 단위 이동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단위의 여행비율이 증가하였다.

< 동행인원 >



- (하계휴가 계획시점) 2011년 대비 2014년 하계휴가 계획 시점은 '6월 이전'이 큰 폭으로 증가(22.0%: 23.8%(11)→45.8%(14))하여 점차 이른 시점에 휴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해외여행 또는 장기간 여행 등을 위한 사전 예약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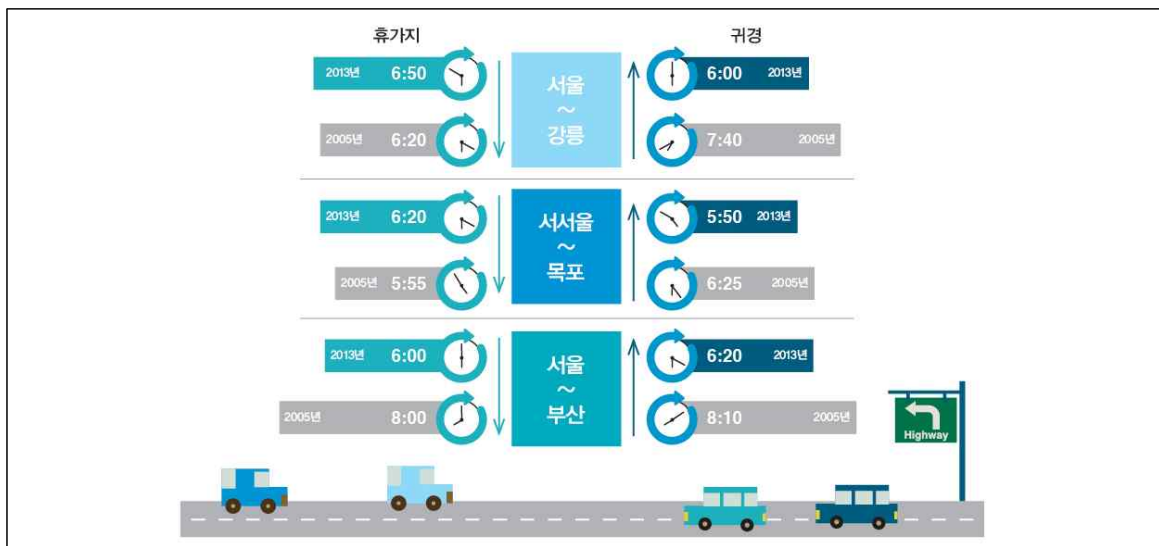
< 하계휴가 계획수립 시점 >



□ 고속도로 최대소요시간 단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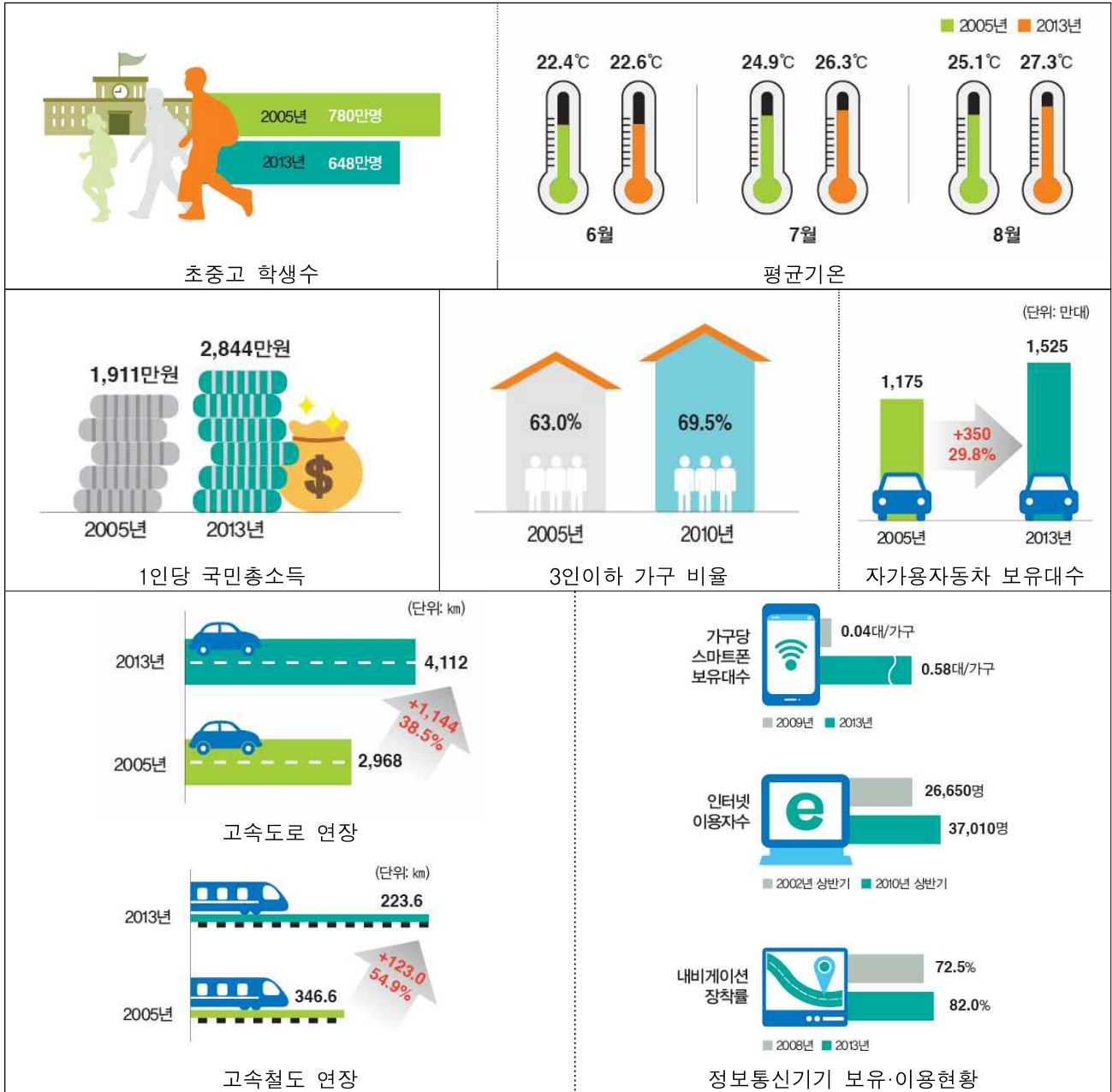
- 2005년과 2013년 고속도로 최대소요시간을 비교한 결과 '서울~부산' 구간의 경우 휴가지와 귀경 약 2시간 가까이 최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. 하지만 '서울~강릉'구간과 '서서울~목포'구간 경우 교통량 증가로 인해 휴가지 방향으로 약 30분 증가한 반면 귀경은 각각 1시간 40분과 35분 정도 단축된 결과가 나타났다.

< 고속도로 최대소요예상시간 >



- 이는 SOC 사업의 확충,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정보제공 향상, 정부의 지속적인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.

< 관련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 비교 >

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계휴가 통행분석결과를 기초로 강원권 수요 집중, 남해안 및 제주도 여행 비율 증가 및 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 변화하는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향후 특별교통대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

-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계휴가기간 약 30일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하계휴가기간의 통행수요를 분석·예측함.

<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개요>

구분	2005년 조사	2014년 조사
조사표본	3,964 세대 (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± 1.56%)	9,000 세대 (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± 1.03%)
조사일시	6월 21일 ~ 23일 (3일간)	6월 26일 ~ 29일 (4일간)
조사대상	전국 단위 세대(16개 시도)	전국 단위 세대 (17개 시도-세종특별자치시 포함)
조사방법	컴퓨터(CATI)를 이용한 전화인터뷰	컴퓨터(CATI)를 이용한 전화인터뷰
표본추출	세대수 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	

구분	2005년	2013년	증감율 (%)	
초중고 학생수 ¹⁾ (명)	7,796,401	6,481,492	-16.9	
평균기온 ²⁾ (°C)	6월	22.4	22.6	+0.9
	7월	24.9	26.3	+5.6
	8월	25.1	27.3	+8.8
1인당 국민총생산 ³⁾ (만원)	1,895.8	2,869.5	+51.4	
1인당 국민총소득 ³⁾ (만원)	1,910.7	2,844.1	+48.9	
3인 이하 가구수 ⁴⁾ (가구)	186,367	338,988('10)	+81.9	
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 ⁵⁾ (자가용 승용자동차+15인승 미만 자가용승합차) (만대)	1,175	1,525	+29.8	
고속도로 연장 ⁶⁾ (km)	2,968	4,112	+38.5	
고속철도 연장 ⁷⁾ (km)	223.6	346.6	+54.9	
가구당 스마트폰 보유대수 ⁸⁾ (대/가구)	0.04('09)	0.58('13)	+1,350.0	
인터넷 이용자수 ⁹⁾ (천명)	25,650 ('02년 상반기)	37,010 ('10년 상반기)	+44.3	
내비게이션 장착률 ¹⁰⁾ (%)	72.5('08)	82.0('13)	+9.5	

자료: 1) 교육부, 교육통계연보

2) 기상청

3) 한국은행, 국민계정

4) 통계청, 인구주택총조사: 2005년과 2010년 결과임

5) 국토교통부, 자동차등록현황보고(각년도 12월 자료)

6) 국토교통부, 도로현황조사

7) 한국철도공사, 철도통계연보

8) 방송통신위원회,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

9) 미래창조과학부, 인터넷이용실태조사

10) 마케팅인사이트,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조사